

STATISTICAL YEARBOOK OF JANGSEONG

I

# 연혁

History



## 연 혁 History

### 1. 선사시대

우리 장성에서 구석기 유적은 북이면 달성리와 사거리, 북하면 중평리 지역에서 발견되었다. 신석기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하천을 중심으로 정착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동기시대는 고인돌로 대표되는 지석묘가 모든 지역에서 발견됐으며, 더불어 조개더미, 민무늬 토기, 돌도끼 등이 출토됐다. 따라서 장성지역은 신석기와 청동기시대부터 많은 사람들이 농경 마을을 형성하며 살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철기시대는 북이면 만무리에서 발견된 세형동검, 크고 작은 고분들을 미루어 보아 벼를 심어 곡식을 수확하고, 누에를 키워 비단을 짜는 단계의 군장(君長)들이 나타나 초기 국가사회를 시작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 2. 마한시대

영산강 지류인 황룡강 상류와 산간지대로 형성된 장성 지역은 마한 54개국 중 고랍국(古臘國)이 장성읍 지역에, 구사오단국(臼斯烏旦國)이 진원면 지역에, 임소반국(臨素班國)이 삼계·삼서면 지역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3. 백제시대

「삼국사기」와 「고려사」 기록에 의하면 장성지역은 고시이현(古尸伊縣 읍,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북하)과 구사진혜현(舊斯珍兮縣 진원, 남) 및 소비혜현(所非兮縣 삼서, 삼계, 동화) 등 3개 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읍 영천리 석실고분과 삼서 학성리 고분 그리고 유평리 대형고분 등은 이때 만들어졌다. 진원과 삼계의 읍성은 물론 벽오산성, 망점산성, 이척산성, 삼성산성, 고성산성 등 주변에 있는 많은 산성 들도 이 시기의 유적이다.

백제가요로 내용은 전해지지 않으나 그 내력이 「고려사」와 「증보문헌비고」에 기록된 방등 산곡(方等山曲)이 있다. 이 곡은 북이면 방장산의 도적에게 끌려간 장성 여인이 자신을 구하러 오지 않은 남편을 원망하며 부른 노래로 알려져 있다.

632년(무왕 33) 지금의 백양사(白羊寺)인 백암사(白巖寺)가 여환스님에 의해 창건되었으며, 1034년 중연스님 시기에 정토사(淨土寺)로, 1574년 환양선사와 관련된 흰 양 전설에 따라 백양사라고 부르게 되었으며 지금에 이르고 있다.

### 4. 통일신라와 후백제시대

660년(무열왕 7) 장성 지역은 신라 영역이 되었다.

757년(경덕왕 16) 고시이현을 감성군(岾城郡)으로, 구사진혜현을 진원현(珍原縣)으로, 소비혜현을

삼계현(森溪縣)으로 고쳤으며, 갑성군은 무진주(武珍州)의 관할을 받고, 속현으로 진원현과 삼계현을 관할하게 되었다.

892년(진성여왕 6) 후백제 견훤의 세력으로 포함되어 936년까지 계속되었다. 이 시기와 관련되어 우리 장성에는 견훤과 연관된 전설이 많다.

## 5. 고려시대

936년(태조 19) 후백제가 멸망하여 장성은 고려의 영역이 되었다.

940년(태조 23) 우리 지역 이름이 갑성군에서 장성군(長城郡)으로 바뀌어 천년 넘게(1,086년) “장성”이라는 지명을 사용하고 있다. 관아는 현재 북일면 오산마을에 위치했다.

장성 지형은 갑성군의 갑(岬산허리 갑)자나 장성(長城) 글자를 보면 산성과 관련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북쪽의 백암산과 입암산, 서쪽의 방장산과 축령산, 동쪽의 병풍산과 불태산 그리고 제봉산 등이 장성 고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은 소쿠리 형태의 고을이다.

1018년(현종 9) 장성군과 삼계현은 영광군의 속현이 되고, 진원현은 나주목의 속현이 되었다.

1172년(명종 2) 장성현과 진원현에 감무(監務)가 파견되어 영광과 나주에서 독립되었고, 삼계현은 영광군의 속현이 계속되었다.

1256년(고종 43) 입암산성에서 송군비(宋君斐) 장군이 백성들과 함께 차라대(車羅大)의 몽고군을 무찔렀다.

하늘이 개구리를 내려준 효자로, 장성 지역에서 성리학의 씨앗을 뿌린 유학자로 잘 알려진 절효공 서능(節孝公 徐稜) 선생은 고려말(고종 연간 1213~1259) 사람이다. 효행 기록은 「고려사열전」, 「삼강행실도」, 「세종실록지리지」 등에 실려 있고, 유학 정신은 후손들이 지켜야 할 규범인 「거가 십훈(居家十訓)」으로 전해지고 있다.

## 6. 조선시대

1413년(태종 13) 장성현은 나주목의 관할이 되고, 진원현은 장흥도호부의 관할이 되었다. 이 시대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장성현은 183호수에 인구 840명이었고, 진원현은 144호수에 인구 747명으로 기록되어 있다.(세금 부과 호수와 인구로만 추정됨)

1590년(성종 21) 하서 김인후(河西 金麟厚) 선생을 모신 필암서원(筆巖書院)이 읍 기산리에 세워졌다. 정유재란(1597) 때 불에 타 없어져 1624년 황룡면 증산동에 다시 세웠으나, 물에 잠기는 피해가 발생하여 1672년 현재 위치인 황룡면 필암리에 세워져 지금까지 이어진다.

1592~1597년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기간 중 장성 지역에는 충신과 의병을 일으킨 분들이 많다. 북이면 백암마을 출신으로 부산 동래성 전투(1592. 4.)에서 순절하신 당시 양산군수 조영규(趙英圭), 북일면 오산마을 광장에서 세 차례(1592, 1593, 1597년)나 의병을 일으킨 의병장 김경수(金景壽), 전쟁이 일어나자 곧바로 고향에서 화차(火車)라는 신무기를 만들어 해주대첩 승리를 이끈

망암 변이중(邊以中), 북일면 사동마을 출신으로 장성 의병에게 무기와 군량을 지원해준 당시 고창현감 정운룡(鄭雲龍), 현재 상무대가 들어선 삼서면 학성리에서 의병을 일으켜 진주성싸움에서 순절하신 호랑이 장군 심우신(沈友信), 정유재란 때 입암산성에서 왜적과 싸우다 순절하신 윤진(尹軫) 선생이 있다. 수많은 이름 없는 장성의 백성들과 함께 위기에 처한 조선을 지켜낸 분들이다.

1600년(선조 33) 극심한 전쟁의 피해로 인구가 크게 줄어 장성현과 진원현을 합해 장성현으로 하고, 두 현의 중간 지역인 성자산 아래인 현재 읍 성산초등학교 자리에 관아를 세웠다.

1655년(효종 6) 전쟁 이후 국방력 강화를 위해 입암산성에 수진관(守鎭官)이 설치되었으며, 장성현이 도호부로 승격되고, 부사(府使)가 수진관을 겸직하게 됐다. 이때부터 1895년까지 남들이 부러워하는 현감고을(縣監 宗6품)에서 부사고을(宗3품)이 된 것이다.

조선중기(영조 이전) 읍동(邑東), 읍서(邑西), 내동(內東), 외동(外東), 남일(南一), 남이(南二), 남삼(南三), 서일(西一), 서이(西二), 서삼(西三), 북일(北一), 북이(北二), 북상(北上), 북하(北下), 역면(驛面) 등 15개의 면이 있었다.

이 시기의 삼계, 삼서, 동화는 장성과 합병되기 이전이라 삼계현과 나주목에 포함되어 있었다. 삼계현(현재 삼계·삼서면)은 현내(縣內), 내동(內東), 외동(外東), 삼북(森北), 삼남(森南), 외서(外西) 면으로, 동화는 나주 대화(大化) 면이었다.

1759년(영조 35) 발행된 「여지도서」에 장성현은 15개 면, 6,242호구, 12,823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789년(정조 13) 발행된 「호구총수」에 장성현은 15개 면, 289리, 6,709호구, 22,789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894. 5. 27. 녹두장군 전봉준과 장성 접주 이춘영이 이끈 동학농민군이 황룡시장과 황룡강 그리고 장산리 들녘에서 총알 방어무기 장태를 앞세워 중앙의 정예부대와 싸워 승리한 “동학농민군 황룡전투”가 있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황룡중학교 건너편에 동학공원이 세워져 있다.

1895. 5.(고종 33) 칙령 제98호로 8도(道)에서 23부(府)로 채택되어 도호부에서 군수(郡守)가 임명되는 장성군으로 바뀌며, 전라도 전주부의 관할이 되었다.

1896. 8.(건양 1) 칙령 제36호로 13도(道)가 채택되어 전라도가 전라남·북도로 갈라지면서 전라남도 장성군이 되었다.

1906. 9. 창평군 갑향면이 장성군에 편입되어 16개의 면이 되었고, 나주의 대화면이 함평군에 편입되었다.

조선말과 대한제국 시기에 일제 침략에 맞서 싸운 많은 장성 사람들이 있다. 1896년 호남 유림을 대표하며 장성향교에서 의병을 일으킨 기우만(奇宇萬), 1907. 9. 황룡면 수연산 석수암(石水庵)에서 호남창의회맹의 대장이 되어 호남의병을 총괄한 백마장군 기삼연(奇參衍), 읍 국동원·변만기, 진원 강사문, 삼계 이화삼, 삼서 김봉수·이범진, 황룡면 김익중·기산도, 서삼 이증백, 북이면 김영백·고제남 등 수많은 의병과 열사들이 일제에 맞서 치열하게 싸웠다.

1908년 장성 최초의 사립학교 장명학교(후에 성산초)가 장성향교에 세워져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후 1918년 읍 성산리 송일학교, 1919년 북이 사거리 오복의숙, 1920년 백양사 청류암 광성의숙 등의 학교가 운영되었다.

1910년 삼서면 외연마을 출신 반학영(潘學榮) 선생이 일제 병탄에 울분을 참지 못하고 경기도 파주 삽다리 장터에서 할복 자결하였다.

## 7. 일제강점기 시대

1914. 1. 일제에 의해 호남철도가 건설되고 청운역(靑雲驛)이 개통되면서 청운, 대창, 매화 지역에 새로운 도시가 형성되었고, 장성의 중심지가 점차 성산에서 역 앞 신도시로 옮겨졌다.

1914. 4. 행정구역 개편으로 13개 면 123개 리가 되었으며, 지금의 삼계면, 삼서면, 동화면이 장성군에 편입 되었고, 갑향면은 담양 대전면으로 속하게 됐다.

장성군은 장성(읍동, 읍서, 진원(珍原 내동, 외동), 남면(南面 남일, 남이), 황룡(黃龍 남삼, 서일, 서이), 서삼, 북일, 북이, 북삼(北三 역면), 북상, 북하, 삼계(森溪 현내, 삼북), 삼서(森西 삼계 삼남, 외서), 동화(東化 삼계 외동, 함평 대화) 13개 면이 되었다.

1915. 7. 고창군 성송면 생촌리가 장성군 삼계면으로 편입되었다.

1919. 3. 10. 삼서면 소룡리 소룡교회 만세운동, 3. 21. 읍 성산리 만세운동, 4. 3. 북이면 모현리 만세운동 등 장성의 많은 지역에서 일제에 맞선 독립 만세운동이 펼쳐졌다.

이후에도 장성 사람들은 국외에서 상해임시정부 활동, 1929년 광주학생 독립운동, 신간회 활동, 노동조합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펼쳤다.

1921년은 우리 장성에 많은 일들이 일어난 해이다. 역을 중심으로 신도시가 번창함에 따라 군청이 성산에서 현재의 자리인 영천리로 이전됐으며, 다음 해 1922. 10.에 군 청사와 경찰서 낙성식도 열렸다.

이에 따라 성산 군청 자리에 성산초등학교가 옮겨오고, 당시에 배워서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는 여망이 강해져 지역의 뜻있는 유지와 면민들의 기부와 헌금으로 많은 사립학교가 설립되는데, 1921년 월평초, 사창초, 약수초등학교, 1922년 북이초, 진원초, 삼서초등학교 등이 줄줄이 개교했다.

1930년 북상면이 장성면에 편입되어 12개의 면이 되었다. 북일면 공평마을이 서삼면으로 편입되었다.

1942. 12. 29. 장성면사무소가 읍 성산 수산리에서 현재 읍 영천리 읍사무소 자리로 이전했다. (조선총독부 전라남도 고시 제3호)

1943. 10. 1. 장성면이 장성읍으로 승격되어 1읍, 11개 면이 되었다(조선총독부 관보 제4999호)

## 8. 대한민국

1950. 7. 23. 부터 동년 10. 22.까지 동족간의 전쟁과 공산 치하에서 끔찍한 이념 갈등이 일어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좌우 이념 대립으로 장성 곳곳에서 가슴 아프고 참혹한 사건들이 일어나 많은 분들이(1만 여명) 희생되었다.

1965년 장성군 인구는 132,133명으로 장성 역사 이래 가장 많은 군민이 살았다. 읍·면별로 읍 26,851명, 진원 9,868명, 남면 11,700명, 동화 8,174명, 삼서 14,192명, 삼계 13,521명, 황룡 13,626명, 서삼 5,867명, 북일 6,668명, 북이 9,485명, 북상 5,866명, 북하 6,315명 이었다.

1973년 읍 단광리와 황룡면 월평리 고려시멘트 공장에 산업용 가마 소성로(燒成爐)가 설치되며 시멘트 생산이 시작되었다.

1973. 11. 호남고속도로(2차선)가 전주에서 순천까지 개통되면서 철도와 고속도로가 장성의 중앙을 남북으로 지나가면서 장성은 교통의 요충지가 되었다.

1975년 장성댐 건설로 수몰된 북상면이 폐지되고, 현재와 같이 1읍, 10개 면이 되었다. 북상면의 용곡리는 읍으로, 수성·오월·조양리는 북이면으로, 쌍웅·동현·덕재리는 북하면으로 편입되었다.

1976. 10. 14. 장성댐이 차관 730억 원으로 준공되어 장성, 나주, 함평 지역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제공하고 있다. 준공식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열렸다.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간에 철도와 고속도로 통행이 중단되었으며, 민주시민들이 읍과 황룡면 파출소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계엄군에 저항했다. 서삼면 밤실마을 출신 김동수 열사가 전남도청을 끝까지 지키다 돌아가셨다.

1983. 12. 15. 남면 삼태리 치촌이 광주시에 편입되었다.

1994. 12. 광주시에 있던 육군 교육의 산실 상무대 보병·포병·기계·화학학교가, 1995. 8. 공병학교가 삼서면 학성리로 이전되었다.

1995. 7. 1. 지방자치 시작으로 김흥식 군수가 당선되어 민선 1기가 시작되었다. 1895년부터 1995년까지 군수는 대한제국, 일제 조선총독부, 대한민국 중앙정부에 의해 임명되었으나, 1995. 7. 부터는 군민들이 직접 군수를 선출하였다.

2019. 7. 10. 필암서원이 전국 9개 서원과 함께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지정 세계유산이 되었다.

2024. 12. 31. 1읍 10개면, 300개 행정리, 481개 자연마을 구성으로 43,253명의 군민이 살고 있다. 읍·면별 인구는 읍 13,708명, 진원 3,688명, 남면 3,746명, 동화 1,989명, 삼서 3,058명, 삼계 5,353명, 황룡 4,090명, 서삼 1,536명, 북일 1,378명, 북이 2,721명, 북하 1,986명이다.